

## **평강의 하나님(사사기6:23-24)**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물질, 지식, 실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평안이 없으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물질이,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3: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 **1. 기드온의 변화**

\* 기드온의 뜻은? “베는 자, 찌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므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1) 소심 : 불안**

① 사6:1-6,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칠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산속에서 움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곡식을 파종하여 추수 때가 되면 나타나 양과 소,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고 빼앗아 가므로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② 사6:11,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한 겁쟁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15),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겁쟁이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2) 담대함 : 평강**

① 사6: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큰 용사여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6:15,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기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6: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② 사6:23-24,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소심했고, 겁쟁이었던 기드온, 천사를 만나 죽을까 두려웠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기드온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서 곧 바로 제단을 쌓고서 그곳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삿6:25-28,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종교개혁이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칠년 된 수소를 끌어다가 번제를 드리고, 바알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로 불살라 번제로 드리므로 펄박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얻은 별명이 여룹바알, 즉 바알과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③ 삿7:1-8,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앞에 두고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 전쟁을 위한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전쟁에 나갈만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 하니,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거기서 돌아간 자가 이만 이천 명,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개처럼 훔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을 나누어 개처럼 훔아 먹는 자, 겁쟁이 삼백 명을 선발하여 그들로 향아리, 햇 불, 나팔을 준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삿8: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년 동안 그 땅이 평온 하였더라”

\* 소심한 겁쟁이 같은 우리들이 전적으로 평강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

### (1) 평안

① 마28: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가 평안하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얼굴 펴라 하십니다. 너희 자녀는 평안하냐? 가정은 평안하냐? 직장생활은 평안하냐? 사업은 평안하냐? 너희 교회는 평안하냐? 이 나라는 평안하냐?

②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③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2) 하나님의 나라 <= 최고의 기도제목(롬14:17)>

\* 롬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① 의 : 죄사함, 자유, 바르게, 깨끗하게

② 평강 : 평안, 평화

③ 희락 : 기쁨, 즐거움

### 결론> 최고의 기도제목

(1)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시오.

(2) 평강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소서!(어디가든 피스메이커)

(3)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